

천년의 풍상 비켜간 듯 태고적 신비가...

암자를 찾아서

⑦ 수락산 내원암

바위가 벽으로 둘러치고 있으니, 물이 굴러 떨어져 수락(水落)이요, 모래가 눈처럼 쌓였으니, 골짜기의 물이 맑아 구슬물이다. 바위들이 서로 걸터 앉았으니 이름하여 향로, 경천의 기봉을 이룬다.

-〈내원암 칠성각 신전기〉

서울시와 의정부시, 그리고 남양주시에 걸쳐 있는 수락산(水落山)은 북한산, 도봉산, 불암산과 더불어 서울 북부지역의 4대 명산으로 꼽히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해발고도 638미터로 그다지 높지는 않지만 제법 덩치가 크고 우람한 암산이다. 실학자 신경준은 〈산경표〉에서 수락산을 '백두대간에서 뻗어 내린 한복정맥이 흐른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수락산에는 석벽과 암반으로 된 기암괴석이 즐비한데 산이 높으면 물이 깊듯, 많은 골짜기에 폭포로 유명하다. 수락산의 이름도 이러한 폭포 때문에 '물이 굴러 떨어진다'는 뜻으로 붙여진 이름이다. 산 이름에서 엿볼 수 있듯이 수락산은 여름철이 제격이다. 시원한 계곡과 폭포에서 더위를 씻기에 그만인 까닭이다.

이 중 수락산 내원암으로 오르는 마당바위 계곡은 수락산의 계곡 중에서 으뜸으로 꼽힌다. 이 계곡은 청라각, 옥류동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물 좋고 경치 좋은 골짜기에 붙는 청학, 백운, 옥류 등 이름의 기원으로 생각하면 이 계곡의 아름다움을 짐작할 수 있다.

이 계곡에는 예부터 이름난 3개의 폭포가 있다. 바로 옥류폭포, 은류폭포, 금류폭포다. 그러나 옥류폭포까지는 개인 소유지여서 난개발이 진행됐다. 호곡 남용익의 〈간폭정기〉에 실린 '수락산 옥류동의 아름다운 폭포 옆에 간폭정을 지었다'는 그 곳, 옥류폭포에는 이미 장사하는 천막과 좌판으로 가득하다.

속상한 마음도 잠시, 20여분을 오르면 시멘트 포장길이 끝나고 맑고 깨끗한 계곡이 길손을 맞는다. 기암괴석 위로 나있는 돌층계와 200여개의 돌계단을 다 오를 즈음 길 좌측으로 은류폭포가 나타난다. 은류폭포는 수락산 중턱 위에 위치해있다. 시원한 물소리와 바람이 흐르는 맑고 열기를 금새 날려버린다. 은류폭포는 전하는 말에 의하면 해가 동쪽에서 뜰 때 물이 은빛으로 빛난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겨울철이면 빙벽 등반을 하기 위한 사람들로 북적이는 곳이다.

마지막 관문인 돌계단은 끝이 없을 것 처럼 위로 이어져 숨을 턱에 닿게 한다. 여기



세간 남짓한 대웅보전은 소박단정 하지만 지나가는 등산객들의 머리를 절로 숙이게 한다. 주변이 정갈하게 정돈되어 기도수행자의 면모를 느끼게 한다.



내원암 아래 위치한 은류폭포



조선초기 제작된 것으로보이는 미륵마에불



내원암 마당의 석탑과 '성사' 편액이 걸린 전각

서 오르면 금류폭포가 나온다. 계곡물이 졸졸 흐르는데 암반 움푹 들어간 곳에는 맑은 물이 가득 고여 있고 넓은 바위에는 금류동천(金流洞天)이라고 함찬 해서세 필치로 새겨 놓았다.

미륵불 현현하는 도량

이 금류폭포의 위가 바로 내원암이다. 내원(內院)이란 도솔천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입적한 후 56억 7000만년 뒤 이땅에 내려와 중생을 구원할 미륵불이 있는 곳이다. 내원암이란, '미륵불'에 의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곳이다.

내원암은 그리 크지 않은 규모로 금방 둘러볼 수 있다. 계단에 오르면 처음으로 만나서 마당 입구의 석탑이 인상적이다. 탑신은 사라졌고 옥개석만 삼층 남아 있다. 여러 곳에 평굴된 돌을 모은 것이 분명하다. 작은 돌탑이지만 내원암의 세월을 증명한다.

내원암은 신라시대 창건된 사찰로 조계종 봉선사의 말사다. 〈봉선사본말사지〉에는 신라시대에 창건된 것으로 나타나있다. 조선 후기에는 왕실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사세가 번창했다고 한다.

1693년 숙종이 수락산에서 영일 스님으로 하여금 백일기도를 올리게 한 뒤 영조를 얻은 이후로 조선왕실의 기도처가 됐다. 특히 영조의 인연이 깊는데 설화에 의하면 영조의 계비 정순왕후가 왕손을 얻고자 내원암에서 용파 스님과 농산 스님으로 하여금 100일 기도를 드리게 했고 기도 중 농산 스님이 환생해 순조가 됐다고 한다.

정조 때 강원도 건봉사 스님이 묘향산에 있던 16나한을 옮겨 내원암에 봉안하여

신라시대 창건된 봉선사 말사

조선후기 왕실 후원으로 사세 번창

김시습 10년간 머물렀다고 전해져

수락산 바위 깎아 만든 미륵불 '눈길'

'성사'라고도 불렀는데 지금까지도 전해내려오고 있다. 이후 조선시대에는 왕실 원당으로 수많은 왕실 여인들이 찾았다.

한국전쟁 때는 소실됐는데 1955년 다시 옛 모습을 회복하기 시작하였으며 1968년에 대웅전을 새로 건립하였고 그 후 영산각과 미륵전을 복원하였다고 한다. 또한 이후 친일파 후손과 부지 소유권으로 법정공방을 벌였으나 최근 승소하였다

산 깊은 골짜기에 비탈을 고르고 축대를 쌓아 마련한 사찰공간의 여러 건물이 다양

하다. 절집 범위가 그리 넓지는 않지만 말 그대로 암자다워 수행과 기도처로 적당한 곳이다.

내원암의 대웅전과 영산전 사이에 있는 미륵마에불은 가쁜 얼굴과 오목한 코에 입고리가 살짝 올라간 작은 입을 가지고 있다. 현대의 미인상을 이처럼 잘 표현한 마에불도 없을것 같다.

이 미륵마에불은 수락산의 바위를 깎아 만든 조선시대 것으로 추정되며 한국전쟁 당시 폐허가 된 절을 중건할 때 땅 속에 묻혀 있던 것을 찾아 세웠다고 한다. 제작 시기는 정확치 않은데 표현 형식으로 보아 조선조 초기라고도 하고 고려 때라고도 한다. 그저 내원암 미륵불에서 민초들의 소박한 숨씨가 정겨워 보일 뿐이다.

단청을 올리지 않은 새 건물에는 편액이 두 개 걸려있다. 중앙에는 내원암, 오른쪽에는 같은 크기로 성사(聖寺)다. 앞서말한 것과같이 건봉사에 있던 16나한을 옮겨 봉

안하면서 이처럼 이름을 붙였다고 한다.

대웅전은 세간 남짓한 작은 크기로 소박 단정하다. 앞마당에 등산객들이 지나다니는데, 절로 고개를 숙이게 된다. 주변이 깨끗하고 풀꽃 나무 한그루까지 세심한 손길이 느껴지는 것이 비구니 스님 사찰답다.

내원암에는 실물은 볼 수 없으나 경기도 유형문화재 197호로 지정된 '괘불'이 있다. 괘불은 중앙에 석가모니불과 그 아래 관세음보살, 좌우로는 아난과 가섭을 그렸다. 1885년에 제작한 것인데 마름모꼴 인물 배치가 특징이라고 한다. 내원암 괘불은 법화나 큰 행사에만 내어 건다고 한다.

김시습의 절개가 아직도 전해져

수락산 내원암은 우리나라 최초의 한문 소설 〈금오신화〉의 주인공이며, 조선 세조 때 생육신으로 잘 알려진 매월당 김시습의 흔이 담겨있는 곳이기도 하다. 이 곳은 매월당집의 기록에 의하면 매월당 김시습이

세조의 왕위 찬탈을 계기로 방랑하던 중 10년 간 머물렀다고 한다.

내원암 입구인 금류폭포의 안내문에도 매월당과 관련된 글귀가 적혀 있다.

'매월당집(梅月堂集)에 따르면 매월당은 10년간 이곳에 머물렀다 하고, 남용익의 간폭정기(看瀑亭記)에 따르면 옥류폭포 옆 간폭정에서 5리 오르면 김시습 구지(舊址)가 있다'는 내용이니 김시습이 10년간 내원암에 머문 것을 증명한다.

내원암 아래에는 누가 가꾸었는지 모를 작은 텃밭이 형성돼 있다. 이 내원암에서 10여년을 살며 속세를 잊고 수많은 명작을 남긴 김시습을 생각하며 다시 산 아래로 발길을 옮긴다. 지금은 수백년이 흐르며 그때의 풍경이 사라졌지만, 수락산 내원암이 안고 있는 바위만큼은 그때, 김시습의 절개와 기도하는 조선왕실 여성들의 간절함을 간직하고 있는 듯 싶다.

남양주=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주변 둘러볼만한 곳

교통편

지하철 4호선 당고개역 1번 출구→환승 버스 10, 17, 33, 33-1→마당바위 하차
지하철 6호선 화랑대역 1번 출구→환승 버스 1155, 1225→청라리 하차→걸거나(15분) 버스 환승(10, 33분)→마당바위

걷기 코스

마당바위 입구→은류폭포 조망지점→

금류폭포 아래→내원암→수락산장→수락산 정상

주변 볼거리

▲수락팔경
수락팔경은 내원암에 머물던 정허 거사가 내원암을 중심으로 한 수락산 동부의 풍경을 읊은데서 유래한다. 제1경은 옥류폭포, 2경은 은류폭포, 3경 금류폭포, 4경 미륵불, 5경 향로봉 6경 칠성대(유두바위), 7경 내원암, 8경 영락대이다. 이중 등



김시습의 시가 남아있는 매월정

산객들에게 칠성대가 가장 인기가.

▲매월정

수락산 매월정은 매월당 김시습을 기리기 위해 곱바위 정상에 지은 전통정자로 2008년 완공됐다. 수락산 주봉으로 향하면 깔딱고개 바로 위쪽에 자리하고 있다. 여기에는 김시습이 남긴 시들이 안내문으로 남겨져 있다. 매월정에 오르면 서쪽으로 보이는 도봉산이, 남쪽으로는 백운계곡 너머 불암산이 보인다.

사랑하는 사람들 마음속에 소중한 그리움으로 함께 합니다

당신의 소중한 가족에게 영원의 안식처를 제공해 드리는

천운사 지장전 자성사리 봉안

천혜의 명당 수락산에 자리한 천운사는 기존의 납골함에서 발생하고 있는 유골의 부패와 악취, 해충 발생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다년간 연구 끝에 천운사 자성사리 결정체를 개발했습니다.

천운사 자성사리는 보석처럼 맑고 영롱한 결정체로 혐오감이나 두려움, 거부감이 전혀 없습니다.

고인의 영가를 명예롭고 소중하게 모시는 천운사 자성사리는 화장된 고인의 유골에 어떠한 광물질이나 화학물질을 혼합하지 않고, 오직 순수한 고인의 유골만으로 생성하는 자성사리이며 수백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형편이 어려워 마음이 있어도 잘 모시지 못하는 마음을 이제 천운사 지장전 자성사리에 봉안하실 수 있게 하여 마음의 짐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법초, 성묘, 제사등 시간적, 경제적 문제도 함께 해결할수 있습니다.

